**학번: 21800201 이름: 김현욱**

**<1번문제: 20점만점>**

**초대교회의 마르시온과 현대의 신무신론자들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진멸(헤렘)전쟁을 잔인한 전쟁범죄 혹은 인종청소로 비난을 하고 있다. 구약의 하나님을 잔인한 전쟁광으로 비하하는 비판자들에게 헤렘전쟁에 대한 변론을 전개하되,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할 수 있는지, 다음 사항을 논의하며 서술하라.**

**(1) 신무신론자들과 마르시온이 진멸전쟁을 비난하는 이유**

이들이 진멸 전쟁을 비난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편애하며 노아의 홍수로부터 시작하여 헤렘전쟁을 무차별 학살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의견으로 수렴한것이다.

**(2) 헤렘의 어원과 의미**

히브리어 헤렘이라는 단어는 바쳐진다, 금한다는 뜻으로 ‘진멸을 통한 성별’을 뜻한다.

**(3) 가나안 정복전쟁의 핵심적인 패턴 분석.**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네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전투 없이 통과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의 영역을 지날 때에는 전쟁을 하지 않고 통과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 싸움을 좋아하시는 전쟁광이 아닌 과거 수백 년 전 에서와 롯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화친을 제안하는 것이다. 요단강 동쪽 지역의 아모리 남북 왕국에는 정말 높은 성벽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모리 왕국이 차지하고 있던 땅들에 대해서 먼저 화친제안을 하셨고 이것이 거부되었을 경우에 전쟁을 하게 하셨다. 또한 이 전쟁에서는 여자와 유아 육축들은 죽이지 못하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 사실 전쟁이란 것 자체는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민간인과 군인을 구분하여 민간인에 대한 살상을 금지한 것은 현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타당한 기준이 되므로 이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가 진멸되기를 원하는 무차별한 전쟁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쫓아내게 하신 사건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게 하셨는데 이는 종교적 거룩함을 위함이었다. 가나안 부족들의 죄는 이미 극에 달하였으므로 그들과 공존하면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도 타락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쫓아내는 명령을 하신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모든 민족을 멸살시키려는 무자비한 분이 아닌 완벽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점이다.

네 번째로 특수한 군대의 요새에 제한된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진멸전쟁은 독일의 홀로코스트 명령과 동일하게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모든 가나안 지역의 민간인을 대상으로한 무차별적인 진멸 전쟁은 명령되지 않았다.

**(4) 헤렘전쟁 뜻, 헤렘전쟁을 해석하는 기준들.**

헤렘은 진멸을 통한 성별이라는 뜻을 갖지만 단어적 의미로 하나님의 사건을 해석해서는 안된다. 헤렘 전쟁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수행되는 4가지 단계를 보며 우선 무차별한 진멸이라는 것이 아니고, 또한 언약을 지키지 않고 계획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며 헤렘 전쟁의 참 된 의미를 알아야 할 것이다. 헤렘전쟁을 해석하는 기준으로는 첫째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편애하는 신이 아니라는 점이다. 구약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의 하나님이시다.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신 것이 맞지만 이스라엘의 민족만을 선택하신 것은 아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대로 이루사 주의 이름을 알고..”에서 알 수 있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모두 사랑하시며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관점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민족을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가증한 죄가 가득 차면 심판을 하신 것이고 이에 가나안 민족들이 진멸과 쫓겨남을 당한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기 때문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들의 악행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400여년이나 주셨고 이에 순응하지 않은 민족을 심판하지 않으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반증하는 것이기에 진멸을 이루신것이다.

세 번째로 진멸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점이다.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공의의 명령을 준행하였을 뿐이다.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 심파하시는 이유는 민족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인 것이다. 인간의 전쟁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며 인간과 우주를 지으시고 절대적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이 전쟁은 공의로운 사건이라는 점이다.

네 번째로 진멸전쟁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관점이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타락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후대에 전달해야 하며 만민을 위한 제사장 국가의 사명이 있기에 종교적 순수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다. 그래서 세속사가 아닌 구속사의 관점에 봐야 한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로 헤렘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관점이다. 헤렘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인간사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의 기록 즉 역사기록방식과 전쟁의 목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신앙기록방식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5) 결론: 구약성경의 하나님의 성품을 변론하라.**

 구약의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행하신 진멸전쟁과 노아를 통해 홍수를 일으키신 사건은 인간사의 입장에서 보면 무차별적인 전쟁과 무자비하신 공의롭지 못한 분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전쟁은 결과가 아닌 전쟁의 목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봐야하며 이는 헤렘전쟁의 4가지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기 위해 타락한 민족을 제거하는 성결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2번문제: 10점 만점> 바울의 전도방식(행17장)과 베드로의 전도방식(행2장)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상호비교하며 설명해보라.**

바울의 전도 방식은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고려하여 배려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이다. 예수님께서도 권위를 버리시고 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함으로써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바울도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고자 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전파하고자 함이었다.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바울의 공감과 배려로 마음을 이끌어내는 방식과 달리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예수님의 행적과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는 방식이다.